장성 필암서원, 문화·예술 향기 입는다

내일 퓨전국악 콘서트…11월까지 4차례 정기공연

郡, 가을축제 연계 기획공연·체험 이벤트도 선봬

장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무대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한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4차례의 정기공연과 가을축제 기간에 맞춘 기획공연까지 펼쳐질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정기공연은 6일 첫 테이프를 끊는다. 필암서원에 배향된 조선시대 유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의 생을 인(仁), 의(義), 예(禮), 지(智)로 구분한 스토리텔링과 퓨전국악 콘서트가 조화를 이룬다. 오후 4시 필암서원 내 마당에서 막을 연다.

6일 정기공연은 첫 시간인 '인(仁)'으로 하서 선생과 정을 나눈 퇴계 이황, 고봉 기대승 등의 인물에 얽힌 이야기가 소개된다.

리마이더스가 선보이는 전자가야금과 거문고 연주가 감동을 더한다.

이후 정기공연은 오는 20일(오후 4시), 9월 19일(오전 11시), 11월 12일(오후 2시) 같은 장소인 필암서원 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희그룹 연화, 아쟁 선율이 인상적인 아마씨, 퓨전국악밴드 삼지창, 김은숙 가야금 병창, 음악그룹 나무 등의 출연진이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준다.

기획공연도 이목을 끈다. 10월 10일 오후 2시 필암서원 앞 공원에서 열리는 '묵죽도의 정, 예술이 되다'에서는 인종 임금이 하서 김인후에게 하사한 묵죽도를 주제로 상황극과 인문학 강좌, 공연이 마련된다.

탈춤과 국악공연은 천하제일탈공작소, 팔도보부상이 각각 맡았다. 강연자로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이벤트도 운영된다. 장성군은 묵죽도와 필암서원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스크래치 페이퍼, 슈링클스 체험과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코너를 열 계획이다.

김한종 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콘텐츠화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재미와 감동을 넘어 의미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문화재청 '2022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장성군의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 활용사업'이 선정돼 추진됐다. 사업비 규모는 국비·군비 포함 1억500만원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민선 8기 출범 한 달을 맞은 김한종 장성군수가 지난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장성군 제공〉

"초심 잃지 않고 '군민 주인 시대' 열것"

취임 1개월 김한종 군수…읍·면 생활민원 처리 예산 증액

민선 8기 출범 한 달을 맞은 김한종 장성군수가 지난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김한종 군수는 "군민이 주인되는 장성시대 30여일의 여정을 보냈다"며 "이·동장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 지역 언론, 사회단체, 향우 등과 폭넓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900여명의 장성 공직자들이 열정으로 함께 해줬기에 민선 8기가 순항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그는 "군민의 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해 적극·소통·현장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2회 추경에 읍·면 생활민원 예산을 증액한 점을 강조해 주목된다. 김 군수는 "기존 10억원 규모 사업비에서 23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33억원으로 늘렸다"며 "생활민원 처리 권한을 읍·면장에게 대폭 확대해 주민 애로사항을 신속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군수는 "군민, 공직자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민선 8기 군민 행복시대,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 지급

장성군, 오는 8일부터 접수

장성군이 오는 8일부터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35억원 규모다.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결혼이민자나 영주자격 취득자 등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8일부터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선 지원보다 10만원 증액된 점이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올해 설 명절 전에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올해에만 모든 장성군민이 50만원 씩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배부돼 민생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호평

행복톡톡 LH 아파트 만들기…우울 예방·치유 프로그램

담양군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 호평받고 있다.

담양군은 4일 "독거노인, 1인 가구, 수급자,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치료 필요성, 방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백동 주공 LH 2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톡톡 LH(내)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우리동네 마음상담소'를 통해 우울증·스트레스 검사, 자살행동 척도 검사, 불면증 척도 검사 등 정신건강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과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치료기관 연계 등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최근 우울예방 교육·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연비누 만들기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사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천연비누를 직접 만들고 향기를 맡으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순복 담양군보건소장은 "취약지구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 검진, 교육·치유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담양군친환경농업협회 출범

전담부서 신설·친환경정책 확대 등 촉구

담양군에서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 농민 1천300명을 회원으로 한 담양군 친환경농업협회가 최근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했다. 〈사진〉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구적 환경·생태계의 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국민의 식량주권이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친환경농업을 통해 한국농업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12월 설립됐다.

이듬해 친환경의무자조금을 출범시킨 이후 시·도 조직과 시·군 조직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해오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협회로 전환함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에서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협회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전남은 전국 친환경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수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코로나 정국과 겹치며 각 시·군마다 많은 인원수로 인해 전환 총회를 성사시키지 못한 데다, 과반수 시·군이 협회로 전환해야만 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방침으로 도 조직 창립이 늦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곡성군과 완도군 등에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친환경농업협회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현재 담양군을 포함해 5개 시·군의 협회 전환을 성사시켰다.

담양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최근 4천42농가의 협회 전환 서면 동의와 100명의 임시 대의원 중 82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제정, 임원 선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친환경농업협회는 현재 담양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임원을 승계하되 임기를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결정하고 12월 중 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담양군친환경농업협회는 올해 말까지 읍·면 지회 구성을 비롯, 친환경 전담부서 신설 요구, 친환경농업정책 확대, 보조사업 전남 평균 수준 시행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협회는 최근 단행한 담양군의 직제 개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는 친환경 전담부서(친환경계·친환경팀)가 존재하는데 담양군은 친환경전담부서 신설은 고사하고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의 부서 명칭에서 친환경을 삭제한 것도 모자라 유통과를 농정과에 통폐합시키고 원예계를 떼어 축산과에 합쳤다.

협회는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의 문제와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그동안 군은 친환경유통과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과 친환경농산물 가공사업을 통한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유통과를 없애고 농업유통과로 통폐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담양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담양군은 4일 "식중독 발생 우려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 64개 항목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지정된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담양군 녹색관광과 식품위생계(061-380-3156)에 신청하면 신청업소를 방문해 위생 수준을 사전 진단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보완사항 등 무상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위생등급 지정표지판, 2년 간 출입 검사 면제 등 위생용품과 등급 별 컨설팅비를 지원받게 된다.

담양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7월 기준 매우 우수 59개소, 우수 11개소, 좋음 3개소로 총 73개소다. 올해 상반기에만 30개소가 신청·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남도문화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